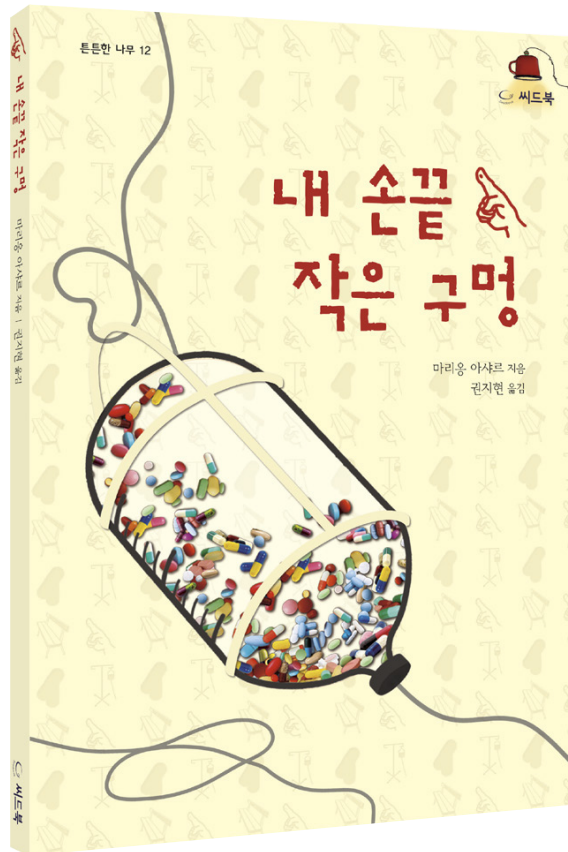


내 손끝 작은 구멍



● 한 줄 소개

우리 모두 똑같아. 아프고 약하고 여린 거 말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 『내 손끝 작은 구멍』 한눈에 보기

엄마는 병원에서 퇴원한 나를 끌고 아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빵집 아줌마, 도서관 사서 선생님, 수영 선생님, 교통안전 지도 선생님까지……. 그날 나는 ‘당뇨병 환자 폴’이 되었다. 수학 잘하는 폴, 부끄럼쟁이 폴, 착한 친구 폴은 사라졌다. 나는 그저 당뇨병 환자 폴이었다. 내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앞머리를 기르는 것뿐이었다.

글의 핵심 파악하여 심도 있게 이해하기 : 나의 약점을 파헤쳐 포스터를 만들어 보기

지혜로운 아나이스 할머니는 폴에게 문병 와서 말합니다. “병(당뇨)은 말이 없으니 네가 대신 말해 주어야 한단다.” 그래서 폴과 친구들은 당뇨를 앓았던 수영 선수를 모델로 당뇨병에 대한 재미있는 포스터를 만들어 아이들 앞에서 발표합니다.

나를 말해줄 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

1. 나는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한가? 어떨 때 속이 상하고 무엇을 잘 못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떨 때 잘 우는지 적어 보자.
2. 내 친구와 선생님도 나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적어 보자.
3.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 보자.
4. 만약 내가 엑스맨이나 천사라면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적어 보고 그려 보자.

● 추천 이유

『내 손끝 작은 구멍』은 소아당뇨병과 병에 대한 편견, 주변의 반응 등을 매우 섬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폴의 당뇨병 투병기’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막 사춘기로 접어드는 초등학생 폴의 사랑스럽고도 따뜻한 성장기이며,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을 이겨 낼 수 있는 또래의 발랄한 우정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담겨 있지요. 또한 나와 다른 이를 대하는 방법, 그리고 세상의 여러 시선과 편견 속에서 소중한 ‘나’를 발견하는 법을 깨닫게 합니다. 본문 뒤에 부록으로 소아 당뇨 캠프 등을 소개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를 위한 사회 복지 정보’는 환자 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으며, 소아 당뇨를 관리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줄 것입니다.

● 수상 내역

2018 모로코 주재 프랑스문화원 어린이 문학상 수상

2017 프랑스문화진흥국 출판 번역 지원 프로그램 선정작

2015 프랑스 릴리의 라 파프 지역 초등학생이 직접 선정하는 아동문학상 트레스 상 수상

2015 프랑스 트레스 지방 도서관이 선정한 청소년소설상 수상

등장인물 파악하여 2차 저작물(연극 공연, 유튜브 동영상 등) 만들어 보기

1. 『내 손끝 작은 구멍』으로 연극을 준비합니다. 내가 감독이 되어 배우 오디션을 보려고 합니다. 각 등장인물의 성격과 외모를 분석하여 오디션 심사 기준을 만들어 봅시다.
2. 오디션을 치루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우리반 아이들 중 배역에 맞는 친구를 골라 보고 의상과 머리 모양 설정해 봅시다.
3. 글 전체에서 절정인 부분을 골라 그것을 기준으로 무대를 설정해 봅시다.

등장인물

주인공 폴	폴의 절친 테오	여자 친구 아나이스
말썽쟁이 쥘	폴의 엄마	아나이스의 할머니
아르튀르 형		

단어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응용해 보자

폴은 병원에 입원하여 함께 당뇨를 앓고 있는 아르튀르 형을 알게 됩니다. 아르튀르 형의 마지막 편지를 받고 폴은 눈물을 흘리는 대신 아나이스와 함께 수영을 하러 갑니다. 그것이 형이 편지로 알려 준 인생의 조언임을 깨닫고 말이지요.

“네가 할 일은 내일이 올 때까지 버티는 거야. 모든 게 잘될 거라고 다짐하는 거고, 그런 거야. 인생은. 때론 불공평하지.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어.”

내가 아르튀르 형이라면 폴에게 무엇이라고 쓸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아요.

인생은 때론 ()하지. ()도 없고, ()도 없어.

글의 주제를 공감하며 읽기

수학 잘하는 폴, 부끄럼쟁이 폴, 착한 친구 폴 대신 당뇨병에 걸린 친구 폴이 되었다고 느낀 날, 폴은 3000유로(우리나라 돈 300만 원 정도)짜리 인슐린 펌프인 카테터를 하수구에 버립니다. 카테터가 없이는 혈당 조절이 안되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도 말이지요. 자신을 환자로 만들어 버린 카테터를 마음의 쓰레기통인 하수구에 버리는 폴을 이해하겠지요? 그렇다면 나는 화가 나고 속이 상할 때 내 마음의 쓰레기통에 무엇을 버리나요? 쓰레기통에 서슴 없이 버릴 목록과 버리기에 망설일 목록을 3개씩 적어 보세요.

인물의 마음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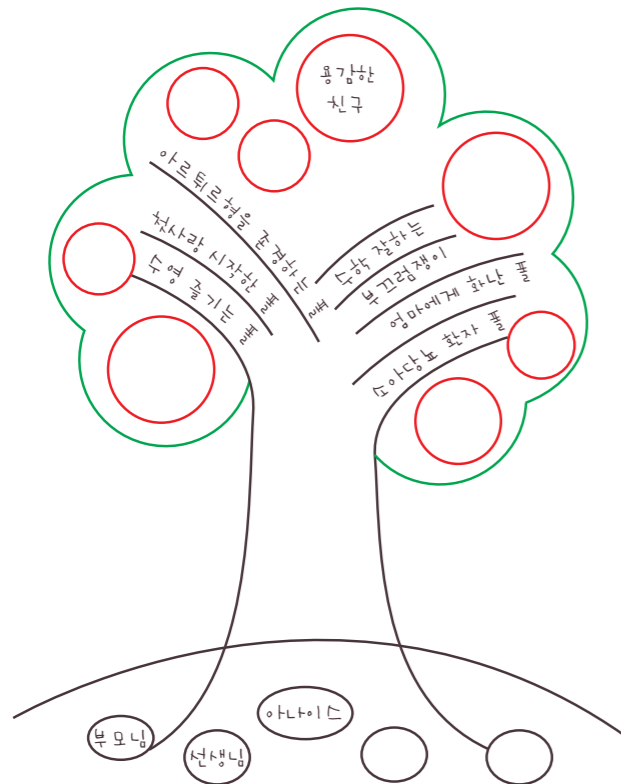
아르튀르 형처럼 돌아올 기약 없는 먼 길을 떠난다면 누구에게 편지를 쓸 것인가요?
그리고 편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쓴다면, 무엇이라고 채워 넣을 것인가요?

11살 내 인생, 인생은 때론 _____, _____, _____ 하다.
그러니 애들아, 너는 _____ 시간, _____ 시간을 가져.

폴의 인생 나무 그려 보기 + 나의 인생 나무 그려 보기

(별첨 부록 1)

예시)



명문장 다섯 개 골라 필사하기

(별첨 부록 2)

예시)

의사 선생님은 내 병이 치료는 할 수 있어도 완전히 낫게 할 수는 없는 병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평생 아파야 한다.

“네 병은 이해하기 힘든 병이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 하지만 널 소리 없이 공격하는 병이란. 병이 말이 없으니 네가 병 대신 말을 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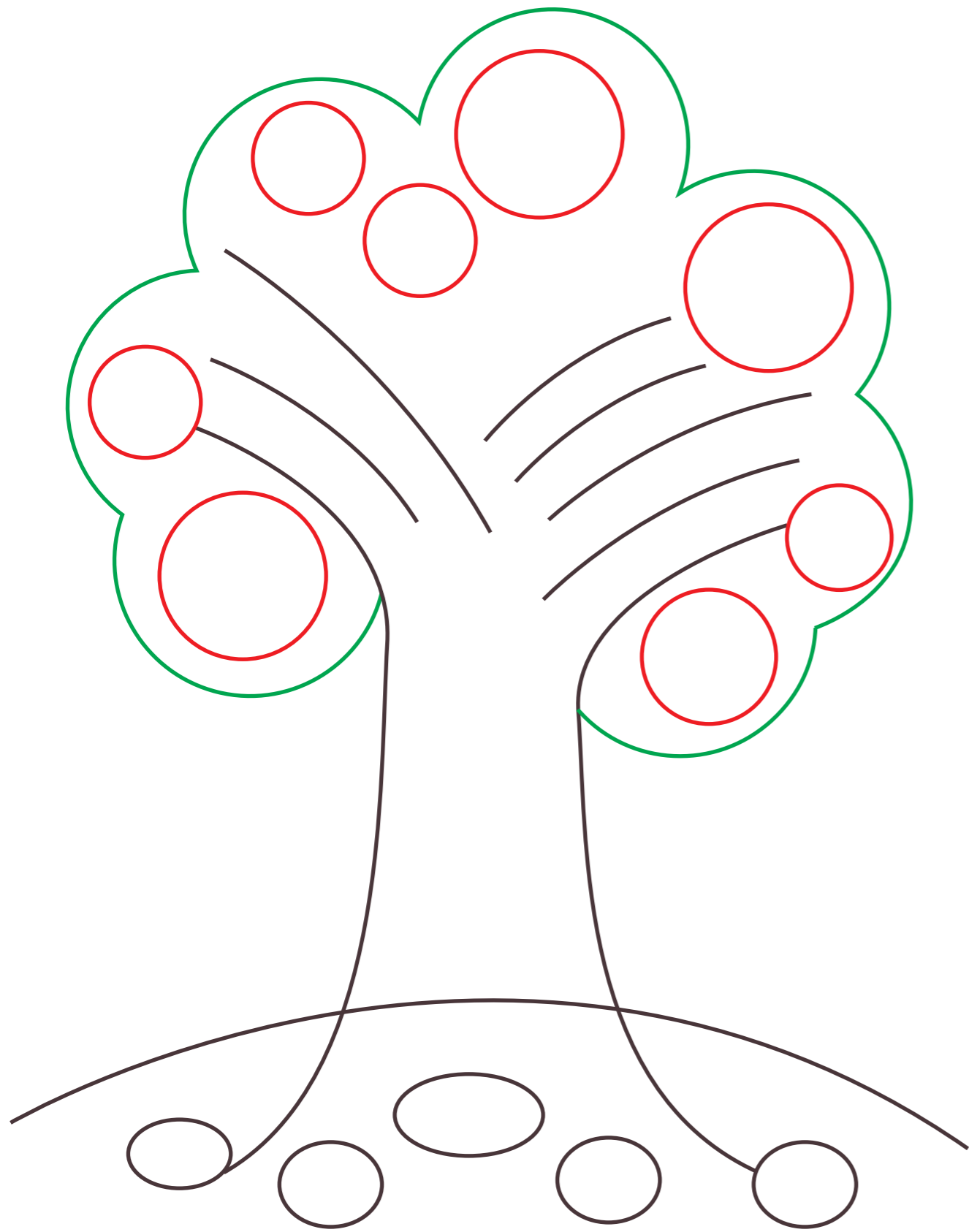
“네가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해 보렴. 사람들은 잘 모를 때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단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 줘.”

나는 손가락 끝에 난 작은 구멍들을 보여 주며 내 몸이 괜찮다는 걸 알려면 꼭 이해해야 하는 숫자들에 대해 설명했다. 또 내 피 안에 들고 있는 당에 대해서도 말했다. 걱정하는 엄마 목소리를 흉내 냈을 때에는 반 아이들이 모두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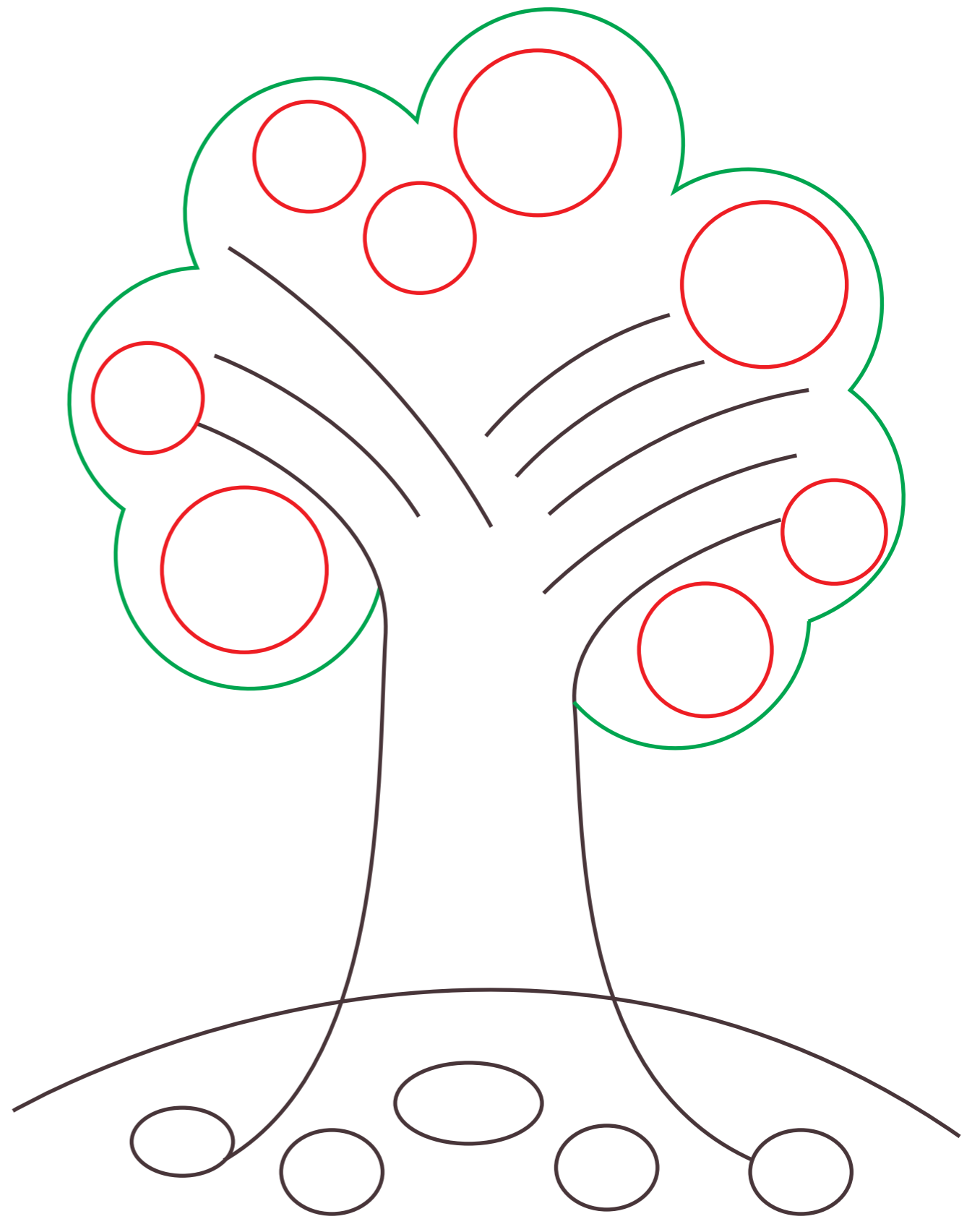
오늘 아침에 네 손을 잡아 보고 싶었어. 내 몸은 안 좋아졌거든. 네가 복도에 없으니까, 그리고 네가 나타나 방해할 일이 없으니까, 너에게 안녕이란 인사를 적어 보내야 겠다 싶었어. 잘 있어 꼬마 친구. 우리 참 잘 놀았지?

침병 소리와 함께 물속에 머리부터 들어갈 때마다 누군가 내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았다. “웃을 시간, 기억할 시간을 가져” 수영장에서 그렇게 재미있게 논 건 처음이었다.

폴의 인생 나무



_____의 인생 나무





명문장 다섯 개 골라 필사하기
